

김호중 계속되는 의혹에도 콘서트 강행

‘음주 운전·뺑소니 의혹’ 속 창원 공연… 팬들 몰려 “모든 진실 밝혀질 것…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

음주 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사진·33)이 18일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이번 논란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가요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투어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에서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 콘서트가 처음이다.

그는 사고 이후 꼬리를 무는 의혹에도 이번 콘서트를 강행해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공연이 열린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주변은 그를 여전히 지지하는 팬들로 공연 시작 수 시간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공연장 주변 주차장은 경기와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팬들이 타고 온 관광버스로 들어차 있을 정도였다.

팬들 대부분은 50대 이상 중·장년

층 여성으로, 김호중 팬덤 색깔인 보라색 옷을 입고 공연장 인근에 마련된 포토존에 긴 줄을 서는 등 콘서트에 기대감을 드러내는 눈치였다.

그러나 팬들은 김호중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본인도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이렇게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며 취재진 인터뷰에 응하거나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김호중 팬클럽 관계자로 추정되는 한 팬은 인터뷰하려는 취재진을 제지하기까지했다.

그를 옹호하는 현장 팬들 분위기와는 다르게 일반 시민들은 공연 강행에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공연장 주변 공연에 산책 나온 60대 시민 장모 씨는 “공연 강행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팬들이 많아서 조금은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이 있다면 빠르게 인정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김호중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김호중의 공연 강행을 옹호하는 팬들도 있지만 비판하는 댓글도 연이어 달리고 있다.

김호중의 인스타그램에는 “콘서트 예매를 했는데 (지금) 취소하려니 수수료가 10만원 넘는다고”며 공연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댓글이 달렸다.

인터넷 예매 기준 이날 공연 관람 가격은 VIP석이 23만원, R석이 21만원이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

로에서 반대편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이동한 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후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김호중이 사고 당일 유충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음주운전 의혹이 일었고, 경찰은 18일 새벽 그가 사고 전 방문한 유충주점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BTS RM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

솔로 2집 ‘컴백 투미’ 80위로 첫 진입

그룹 방탄소년단(BTS) RM의 솔로 2집 선공개곡 ‘컴백 투미’(Come Back To Me)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 진입에 성공했다.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컴백 투미’는 80위로 ‘톱 100’에 처음 진입했다.

이 곡은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모든 것은 아낀지도 모르지만’이란 메시지를 품은 인디 팝 장르의 노래다.

RM은 18일 0시 방탄소년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솔로 2집 ‘라이트 플레이스, 룡 퍼슨’(Right Place, Wrong Person)의 트랙리스트도 공개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로스트’(LOST!)를 비롯해 ‘라이트 피플, 룡 플레이스’(Right People, Wrong Place), ‘넛츠’(Nuts), ‘아웃 오브 러브’(out of love), ‘도모다치’(Domodachi), ‘?’, ‘그로인’(Groin), ‘헤븐’(Heaven), ‘어라운드 더 월드 인 어 데이’(Around the world in a day), ‘TITIT’ 등 11곡이 수록된다.

‘로스트’는 빠른 템포의 얼터너티브 팝 장르로, 밴드 실리카겔의 김한주가 작곡에 참여했다. 이 노



그룹 방탄소년단(BTS) RM ‘컴백 투미’

래에는 ‘친구들과 함께 길을 잃는다면 이것 또한 괜찮을지 모른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겼다.

RM은 앨범 전곡의 작사에 참여했다.

또 실리카겔의 김한주, 미국 재즈 듀오 도미&JD 백, 미국 뮤지션 모세스 심니, 영국 출신 래퍼 리틀십즈, 밴드 핵오의 오혁, 대만 밴드 선셋 톨리코스터의 귀귀(Kuo), 싱어송라이터 정크야드, 바탕타이거의 산안 등이 크레딧(제작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RM이 군 복무 중 처음 선보이는 앨범인 2집은 오는 24일 오후 1시 발매된다.

연합뉴스

뉴진스 부모,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

법원에 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 탄원서 제출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룹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이 탄원서 제출에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민 대표가 낸 의견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판기일을 앞둔 지난 14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강 변호사는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사건을 다수 다룬 변호사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과거 전속 계약서 검토, 전속 계약 해지, 전속계약위반손해배상 연예인 자문 및 송무, 엔터테인먼트 회사 투

자금 반환 소송 등을 했다고 소개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는 강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 뉴진스와 또 다른 하이브 걸 그룹 아이릿의 콘셉트 유사성을 항의하는 메일을 하이브 경영진에 보내기도 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와 분쟁 과정에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

이와 별도로 뉴진스 부모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뉴진



그룹 뉴진스

스 멤버들이 하이브와 전속계약을 다룰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자신은 탄원서 제출 업무만 맡았을 뿐 현재는 뉴진스 멤버 부모들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계약 분쟁까지 대비한 것은 아

니며, 탄원서 제출 업무만 맡기로 했다”며 “지금은 멤버 부모님들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브가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이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주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연합뉴스

‘수사반장 1958’ 해피엔딩… 유종의 미

이제훈 주연의 드라마 ‘수사반장 1958’이 10%대의 높은 시청률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19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방송된 MBC ‘수사반장 1958’ 최종회(10회)는 시청률 10.6%를 기록했다. 이 드라마의 자체 최고 시청률 10.8%와 비슷한 기록이다.

최종회는 주인공 박영한(이제훈)을 비롯한 중남경찰서 수사반 형사들이 공장 여공 연쇄 실종 사건을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권력자들의 뒤를 파주던 중남경찰서장 백도석(김민재)을 체포해 죄값을 치르게 하는 이야기가 담겼다.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사반 유대천 반장이 중남경찰서장에 임명되고, 박영한이 유대천의 뒤를 이어 수사반장이 되는 것으로 과거 이야기가 마무리됐다.

드라마 말미에는 은퇴한 노년의 박영한(최불암)이 등장했다. 그는 자신이 현역 시절에 붙잡았던 범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뒤 세상을 떠난 동료들의 무덤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그리움을 드러냈다.

후반부에 1970~1980년대 인기 시리즈이자 이 드라마의 전작인 ‘수사반장’ 주인공 최불암이 노년의 박영한으로 특별출연했고, ‘수사반장’에 악역으로 단골 출연했던 배우 이계인과 송경철도 회개한 범죄자로 특별출연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1:05 여긴 어디(재) 11:10 TV소 진품명품(재)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7:00 TV 유치원 7:30 생생정보 스페셜 8: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10:00 KBS 아침 뉴스타임 10:20 인간극장 스페셜 11:00 월화드라마 함부로 대해줘(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용감무쌍 용수정(재) 8:30 TV 전국시대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뽀보 좋아좋아 11:15 헬로키즈 과학교실(재) 11:30 토닥토닥 꼬꼬 새로운 팀업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종아리집 9:55 SBS 10 뉴스 10: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8:00 땀과 눈물 유치원 8:50 로미오 프렌즈 9:20 자이언트 팬TV 10:30 한구기행 12:10 극한직업 13:00 EBS 평생학교 15:55 볼록스 17:10 명탐정 피트 4 17:40 드래곤 길들이기
12:00 KBS 뉴스 12 13:00 내트위크 공동기획 문호스케치 13:50 생활의 달인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보물섬(재) 15:00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재) 15:50 고릴라 이수다 16:00 사사간첩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15 월화드라마 함부로 대해줘(재) 13: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영웅발발 콩순이와 친구들 8(재) 15:30 TV 유치원(재) 16:00 스튜디오 K 17:10 세상의 모든 다큐	12:00 12 MBC 뉴스 12:25 이 맛에 산다 13:25 헬로키즈 동물교실3(재) 13:55 2시 뉴스 워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다큐 M	12:00 SBS 12 뉴스 12:50 통사이몽2 13:00 KBS 9시 뉴스 9:30 설바람 10: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3:10 KCTV 디류스페셜 15:10 일일 일일 특집 그런 역사 17:00 KCTV 뉴스 18:00 남민을 고향이 20:00 청색혁명	KCTV 7:00 KCTV 아침 뉴스 8:00 남민을 고향이 9:00 KCTV 9시 뉴스 9:30 설바람 10: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3:10 KCTV 디류스페셜 15:10 일일 일일 특집 그런 역사 17:00 KCTV 뉴스 18:00 남민을 고향이 20:00 청색혁명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우기 20:30 수지맛은 우리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2:55 KBS 뉴스라인W 23:3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18:00 경제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피도 눈물도 없이 20:30 월드 24 20:55 개는 훌륭하다 22:10 월화드라마 함부로 대해줘 23:25 아이 리브 스포츠 23:50 스토리 건(재)	18:05 포구인리 스페셜 19:05 용감무쌍 용수정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폭 쉬면 다행이야 22:45 가정의 달 특집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부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22:10 통사이몽2 너는 내 운명 23:50 나이트리인	제주 CBS FM 93.3MHz / 90.9MHz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시온이다 12:00 CBS 뉴스 14:05 이봉규의 어벤저가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저녁종합뉴스 18:00 한민승무 20:00 CBS 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20일

김중상 지단(한)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곡동 교수(010-5233-6136)

36년 자녀에 관한 소식이나 경사스런 일이 있다. 집에 초대해도 원만하다. **48년** 마음 조절이 때론 필요하다. 가족간 불화나 성격차이로 갈등. **60년** 직장이나 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지연. **72년** 강압이 부드러움에 패하는 격. 부부애정 흥. **84년** 친구나 동료의 도움이 크다. 대인관계에 힘을 쏟아라.

37년 여기저기서 듣는 이가 많이 일은 성사되고 질병은 회복. **49년** 명예 또는 갑부 삶이 생기거나 리더 자로 인정받는다. **61년** 슬픔 뒤에는 기쁨이 온다. 좋은 소식이 찾아온다. **73년** 취업, 직장소식을 접하거나 이성교제 걸. **85년** 어려운면 도움을 청하라. 내 뜻이 성사되고 이뤄진다.

38년 모임이 있으면 참석. 다만 술은 주량만큼만. **50년** 돈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진다. 가정불화 우려. 조정한 추진이 필요. **62년** 자식 문제가 발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교통사고 주의. **74년** 밝은 표정으로 상사를 대하면 좋은 기운이 오고 사랑을 받는다. **86년** 의견다툼이 있다. 변명보다는 수용의 자세 필요.

39년 자녀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태우지마라. **51년** 각종 인허가 계약에 관계된 업무는 순탄하다. **63년** 내 아이디어가 인정을 받거나 계획하는 일이 발전이 있게 된다. **75년** 능력을 인정받게 되니 기쁘니 호사다마 있으니 주의. **87년** 부모님의 걱정이 있으나, 긍정사고로 좋은 결과를 만든다.

40년 몸과 마음이 허전하다. 친구나 취미동호회가 필요. **52년** 덕을 쌓는 지혜가 필요. 봉사할 일이 생긴다. **64년** 생각은 많아 결정하는데 망설인다. 신속한 결정이 인정받는다. **76년** 신용함과 여유를 가져야 손해가 적으니 급할수록 돌아가라. **88년** 경제적 여유가 없어 안타깝다. 밖으로 활동하면 이익 있다.

41년 체면과 명예에 얽매어 실익을 미약하다. **53년** 재물이 있지만 투기는 신중해야 한다. **65년** 영입이나 생산에 활력이 생기고 결과가 함께 하니 분주함이 오히려 즐겁다. **77년** 선택의 갈등이 있다. 안전사고 조심. **89년** 자신감이 있어도 자만함을 나를 조라하게 만드니 자랑은 자제할 것.

42년 외출이나 모임에 참석할 일이 생긴다. **54년** 동료나 거래처의 도움은 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66년** 돈 문제로 불화가 오거나 직장 이동수가 있다. **78년** 직장이나 조직생활자는 불만이 많아진다. 내 눈높이를 낮추고 겸손하라. **90년** 휴식이 필요하고 외출은 부적절하다.

43년 친구나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 좋다. **55년**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 법. 변동은 자제하고 신중해야. **67년**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거나 서두르면 더 큰 화가 된다. **79년** 취업이나 영업성과가 나타나고, 새로운 인성이 나타난다. **91년** 결단과 용기가 동시에 필요하다. 실천하라.

44년 무리수가 오니 확장이나 이전은 보류하라. **56년** 애사자나 자식의 문제로 할 일이 많아지고 바쁘다. **68년** 소망하는 일이 되려다 방해자가 생기니 조심. **80년** 친구들과 이성 삼각관계 심화. 무리수를 두지 마라. 시간이 해결. **92년** 성과가 작아도 한 만큼 이익이라는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

45년 주변 오는 것이 있으니 베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57년** 뒷사람의 도움으로 문제 해결.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라. **69년** 직장이나 하던 일에서 잠시 휴식을 갖자. **81년** 돈의 문제가 발생하니 도난주의. 돈 거래하지 마라. **93년** 형제 또는 동료의 도움 협조가 필요하다.

46년 충동적인 생각이 일을 망치니 신중한 생각보다는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 **58년** 음주 또는 밤 늦게 귀가하면 불리하다. 운전은 자제. **70년** 일의 성사 어렵고, 이성교제가 있어도 내 맘을 채워주지 못한다. **82년** 새로운 추구를 하거나 무언가 갈망하는 하루가 된다. **94년** 친구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

47년 돈이 안되면서도 육체적으로는 고달프다. **59년** 직장문제 지연. 자녀로 인한 고민이 가득. 전문가와 상의. **71년** 영입이 다소 호전되나 부지런함이 최고이다. 승진 또는 행운이 있다. **83년** 당장 힘들다고 행동하는 것보다 인내 필요. **95년** 의견이 맞지 않거나 주변사람과 논쟁한다.